

<2024년 8월 7일 수요말씀>

‘공의(公義)’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본 문 :

<이사야 11:1-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금주에도 수련회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은하수 수련회가 있었고,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부서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금주 주일에는

“확실히 증거할 때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나타나신다” 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공의롭게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누구나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
지혜와 모략과 지식의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를 보내사
공의로 불의를 채찍질하고 심판하시며
서로 화평케 하여서 하나 되어 이상 세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 ‘공의’ 는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그들이 행한 대로 거기 맞춰 대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공의롭게 그 행하는 대로 대하십니다.
자기 마음, 생각, 행위대로 그릇이 차도록
그 존재대로 베풀면서 공정하게 주를 통해 베풀십니다.

자기가 완악하면 하나님도 그같이 대하십니다.
자기 차원대로 대하십니다.

- ◇ 가령, 한 자리에서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많이 있으니 안 주고
“보다 가난한 자에게만 주어야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일한 대로 줌이 공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전에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냐.
수고의 대가를 받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자기 뜻이다.
그때그때 행한 대로 줌이 공의다.” 하셨습니다.

- ◇ 연구하고 알아야 다스리고 잡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각 나라 왕들과 주권자들을 세우고
정치인들을 세우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려 오셨습니다.
왕들과 백성들과 종교인들과 경제인들
학문 세계, 과학의 세계, 운동하는 세계
각 분야대로 공의롭게 알고 그들에게 상벌을 주시며
세밀하게 다스려 오셨습니다.

공의롭게 행치 않는 자들에게도 모두 행한 대로 대하셨습니다.

- ◇ 하나님의 무소불능 전지전능하심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절대 공의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같이 안 했으면 모두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들을 쓰고
모두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공의로 대하여도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함은
자신이 공의롭게 살지 못하여서입니다.

그런 자들은 공의를 모르고,
제 생각대로 안 해 주면 하나님, 성령, 주도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하나님은 수백억의 그 사자들과 천사들로
지구 세상 모든 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모두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 ◇ 공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공의롭게 행치 않은 대로 자기마다 받습니다.

자기 욕을 위해 수고한 대가대로
또 영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대가대로 공의의 대가는 따릅니다.

하나님은 저울같이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저마다의 의를 공의롭게 저울에 달듯 하십니다.
악을 행한 것도 저울에 달듯 하십니다.
저울에 달기 전에 악을 회개하면 의만 저울에 다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주십니다.

의의 대가를 각종으로 쓰시되,
그의 생명을 살려 주는 데 쓰기도 하고
축복으로 쓰기도 하십니다.

- ◇ 하나님은 만물까지도 공의대로 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대로 하면 사탄이 힐문하지 못합니다.
공의롭게 하여야 전체가 개성대로 제대로 큼니다.

공의는 선입니다. 참사랑입니다.
공의를 벗어나면 이탈됩니다.

- ◇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면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공적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면
수고를 하지 않은 고로 가치를 모르고 버리게 됩니다.
가령 모인 자가 100명인데
100명이 먹을 수 있을 음식을 가지고 왔다 합시다.
수고는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에게 더 주니
뒤의 사람이 받지 못해 굶어서 쓰러졌습니다.
공의롭게 하지 않으면 이같이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심판하시나니
공의롭게 행치 않은 자들은 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곧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 ◇ 공의는 정상의 삶입니다.

건강해도 제때 먹고 합당하게 행치 않으면
공의가 무너져 건강도 무너집니다.

얼굴을 얼굴에 해당되게 햇빛을 쬌어야 되는데
 공의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쬌면 얼굴 피부 모두 망가집니다.
 공의를 벗어나면 망합니다.
 공의를 벗어나면 탈선되고 스스로 망합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다 해당됩니다.

- ◇ 좌우로 치우쳐 행치 않음이 공의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자, 심판받습니다.

공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파괴되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공의는 해 준 만큼 받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의 공의와 다릅니다.
 사람은 수고한 만큼 못 해주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10배 100배 더 주시며 대하는 공의입니다.

- ◇ 공의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나 새로운 역사 때
 공의롭게 그 행한 대로 항상 갚아 주시며
 매일 그 천사들과 행하십니다.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가가 큼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들의 악한 행위대로 불의를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 확인하시고 공의롭게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 보라고 불의한 자들에게

계속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지옥은 공의롭게 살지 못한 자들이

그 행위대로 스스로 가는 곳입니다.

◇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공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와 구원하시며

선하게 그 말을 믿고 살라고 하였는데

행치 않은 자는 공의에 벗어나서 죄인들입니다.

고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 주인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공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고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주인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주인인 나 하나님을 모른다.

짐승만도 못하다.” 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공의를 벗어난 자들입니다. 모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도 모릅니다.

- ◇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 형제들을 그같이 대해 주며 살아야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난 것은 불의입니다.

공의를 벗어난 자들은
편안한 인생의 생명길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 ◇ 재판할 때나 선악을 구분할 때
공의에서 벗어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니 그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태양같이 지구같이 언제나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형제들을 듣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대함은
공의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행함이 공의입니다.

매일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앞에 그 뜻대로 삶이
공의로운 이상 된 삶입니다.

- ◇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의 세계가 되어 삽니다.
공의롭게 행치 않으면 행치 않은 만큼 고통이 대가로 옵니다.

창조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리고 땅에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삶이 공의입니다.

자기가 공의롭게 못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함이나 사람들이 공의롭게 행함을
오히려 공의롭지 않게 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공의를 배우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공의를 배우라.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 오늘은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공의는 선이요, 참사랑이요,

공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벗어나면 이탈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공의롭게 못 하나

하나님은 자기가 의를 행한 대로 공의롭게 다 갚아 주시니

원망 말고 행하기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